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당신이 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봄이 되면 좋겠어요.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꽃을 보려면/ 정호승)



이 글을 쓰는 3월 말, 밖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팔을 잃은 아이의 모습이, 헤어짐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의 사진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봄을 맞이하기가 참 쉽지 않군요. 꽃을 보기 위해 시인이 말하듯, 고요히 기다림도 필요하고 따뜻한 가슴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그 악하고 독한 칼을 버리고 내가 봄이 되어줄도 필요하겠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는 4월은 마음이 아픈 달입니다. 잊지 않겠다면, 많은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참사가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전염병으로도 많은 분이 희생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거리두기로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수용자 형제자매님들도 미사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운동이나 접견 등의 제한도 받았습시다. 여러 번 이송을 가는 분들도 있었습시다. 4월에도 전쟁은 계속될까요? 아직도 신문 사회면에는 잔혹한 범죄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4월은 봄이 오는 달입니다. 부활이 있는 달입니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매서워도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부활의 희망마저 빼앗지는 못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후원해주시는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주시는 우리 고운 후원자분들 덕에 그렇게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4월, 아픔을 잘 이겨내고 그리움을 딛고, 당신이 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칼을 버리고 그렇게 봄이 되어주어, 꽃씨 속의 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 각 교정시설 코로나19 응원 과자 꾸러미 지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폭증으로 지쳐있을 각 교정시설 전체 수용자에게 과자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2,600개), 서울동부구치소(2,200개), 서울남부구치소(1,850개), 서울남부교도소(1,200개)가 전달되었습니다. 각 교정시설 소장님들은 “코로나19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3월 7일(월) 명동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사순 기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 핵심은 기도, 희생, 자선이다.”라며, “셋은 각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자선이 기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6)의 복음 말씀에서 “찾아본다는 것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주는 것이다.”라며, “감옥은 공기청정기와 같은 것으로, 정화기를 거친 공기는 깨끗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터는 깨끗한지 자주 청소해 주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교정사목에 끊임없는 관심을 베풀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새로 부임한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환영식도 있었습니다. 송정섭 신부는 “함께 하는 신부님, 직원, 봉사자, 후원회원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감옥에 갇힌 이들, 피해자 가족들 모두 가족이라 생각하고 교정사목에 열심히 집중하겠다.”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송정섭 신부님께서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14일(월) 길음동성당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는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다.”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모난 돌이 오랜 시간 파도에 깎여서 부드러운 자갈돌이 되어가는 것처럼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베풀고 자신을 성찰하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 늘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52주년을 맞이하여 장기봉사자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 30년 장기봉사자

### 이백철 프란치스코 (서울구치소 최고수, 30년)



1992년 세미나에서 김우성 비오신부님을 뵈는 것이 본 위원회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은 긴 세월이었지만 저의 활동은 너무 미미했다는 생각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수행자들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저 자신 역시 불완전하며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분에 넘치게 안락하게 살아왔음에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까지 큰 상을 주신다니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 20년 장기봉사자

### 최형선 벨라멧다 (고봉중고등학교, 20년)



교정사목에서 20년 장기 봉사대상자라는 연락을 받고 '별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받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러니.

그동안 힘들 때마다 그만 다녀야겠다는 말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느님과 살레시오 신부님들, 수사님들, 소년원 봉사자님들 그리고 물적으로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행해 주셔서 20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박정옥 세실리아 (분류심사원, 20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살레시안은 돈보스코의 말씀처럼 청소년들의 마음 안에 선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신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마음으로 청소년들 안에 함께 합니다.

# 늘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 20년 장기봉사자

### 박혜영 소화데레사 (분류심사원, 20년)



2002년 2월 부정적인 선입견을 안고 분류심사원에 수감 중인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20년 동안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봉사할수록 범죄 청소년이라는 낙인으로 소외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분류심사원에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동력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맞닿아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시절을 하루빨리 끝내고 분류심사원에 친구들과 눈을 맞추고 ‘꿈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최인순 안젤라 (분류심사원, 20년)



+찬미예수님

교정사목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던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때에 멋모르고 시작한 봉사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 제가 가진 시간만을 봉헌할 테니 그 시간은 당신이 쓰시라는 기도를 하며 걸어온 봉사의 길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킨 하느님의 큰 뜻을 알아갑니다.

항구하게 그분께 나의 시간을 내어놓으며 가난한 젊은이들 안의 동반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 10년 장기봉사자

### 강연실 세실리아 (서울구치소 최고수, 10년)



난생처음 교도소 문을 들어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긴장한 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신부님 뒤에 숨듯이 종종걸음으로 뒤따라 걸었었지요.

한번, 두번, 세번, 일년, 이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언 1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요? 이젠 강산보다 더 변한, 제 마음을 알겠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수형자들의 모습에 공감보다는 판단의 마음이 앞섰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그냥 그분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웃고 아파하고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복음의 말씀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를 삶으로 살아 보려고 하니 찾아온 변화입니다.

형제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 드린다고 생각하니 행복하고 벅차웁니다.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섭니다

# 늘 곁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 10년 장기봉사자

### 김정실 크리스티나 (서울구치소 여사, 10년)



부족한 저를 교정 봉사자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이라고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 드렸을 뿐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을 ‘참된 사랑’을 선물로 받았고 세상의 한 면만 보던 눈이 두면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들과 함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희 발레리아 (서울동부구치소 남자, 10년)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이 좋아 구치소 봉사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소자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좀 더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하는 시간이었는지 머리 숙여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함께한 봉사자님들의 배려, 사랑, 믿음, 인내, 기도 덕분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신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신앙을 갖고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희 베로니카 (분류심사원, 10년)



2012년 1월 7일부터 토요일마다 어긋난 행동 뒤로 감춰버린 선한 영혼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기를 어언 10년.

부족한 나를 그곳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네들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도와주고 싶습니다.





## 수용자가 보낸 연하장을 받고...

강군오 베드로 / 서울남부교도소 소장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최근 2년여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처우의 제한과 외부와의 차단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여러 교정교화 활동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무렵 한 구치소 수용자의 연하장을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연하장 봉투에 붓펜으로 정성을 기울여 쓴 글씨를 보자마자 보내준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째 붓펜으로 쓴 연하장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5~6년 전 구치소에 근무할 때 몇 번 상담했고 15년 정도 생활한 수용자입니다. 그때까지 본인의 죄와 벌에 대해 억울한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었고, 병이 들고 힘들어하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연하장의 봉투를 열어보니 카드와 편지 2장이 있었고, 카드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 이웃 사람들을 억누르는 악한 세상에 사랑과 정의가 넘치게 할 수 없고,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을 참회와 속죄로 참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없지만 이웃하여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거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복음서 25, 40)라는 복음 말씀을 주제로 하여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므로 믿음에는 실천이 필요하고, 그러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 성경 구절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다섯 개의 담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산상담화(5-7장), 제자들에게 대한 파견 담화(10장), 비유로 된 담화(13장 1-53절), 교회론적 담화(18장), 종말론적 담화(24-25장)입니다.

위 담화 중 마태오 복음서 25장 31절부터 나오는 최후의 심판(25,31-46)에는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세상과 그리스도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듯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25, 40) 이 말씀은 위대한 임금이신 하느님께서 가난하고 열매인 이들의 수호자이시며, 하느님 통치의 특징은 보잘것없고 작은 이들을 특별히 보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하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의 한 종사자로서 저는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과 교정시설 봉사자님들을 기억하고,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로 교정시설에 갇힌 어렵고 힘든 수용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이들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저는 알기에 더욱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그 사람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사랑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에게 보여 주었던 나의 부족하고  
조라한 사랑이 2차 가슴 아프지만 합니다. 당신의 꿈 말고 아름다운  
평생이란 세상에 너무나도 부족한 내가 들어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는 것이  
나만의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었나 반성해 봅니다.

후여, 지금의 부족한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 당신이 아파하고 고통받지는  
않았을까, 보잘 것 없는 나라는 삶에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을 말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당신이 만들어 놓았던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나로 인해 웃음 자를 수 있었기를 바라고, 당신의  
인생에 나라는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닌 추억을 남기며  
회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처럼 기억되길 바랍니다.

세월이 오기전 가장 깊은 어둠이 물려온다는 자연의 순리처럼  
저는 우리의 쓰디쓴 고통의 시간도 서서히 빛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이제는 슬수가 많았던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현재를 잃어버리는 여려운 삶보다,  
후회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시간 과거의 끝없는 후회로 지금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기보다 지난 아픔과 상처를 가슴 속에 다져 일어나는  
유익한 삶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내면 손을 다시 한 번 잡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은 일어설 수 없기에 용기내어 당신의 손을 잡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래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자" 라고 말한 당신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각인 시킵니다.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어서 사랑합니다.

2022년 1월 7일

- 당신을 사랑하는 이자 -

## 2022년 5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5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5월 9일(월)		/ 중서울 길음동성당
▶ 5월 16일(월)		/ 동서울 광장동성당
▶ 5월 23일(월)		/ 서서울 양천 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 이레우리밀)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파운드케이크	₩5,000
▶ 통밀식빵	₩5,000
▶ 통밀두부과자	₩5,000
▶ 흑미식빵	₩5,000
▶ 무가당빵	₩6,000
▶ 통밀모링가빵	₩8,000
▶ 엄마빵 5개	₩10,000
▶ 블루베리베이글 5개	₩10,000
▶ 단팥빵 5개	₩10,000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11~3/14)

2022년 2월~3월에는 국연자 스콜라스티카, 김영선 요셉피나, 김은미 글로리아, 김진량 글라라, 김희숙 헬레나, 소경자 카타리나, 이광우 클레멘스, 이인숙 글라라, 이지는 리디아, 정윤희 아가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